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순천/광양 황경석



여수 김석철

보성군, 소형농기계 공급 확대...올해 512대 지원

농산물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대

보성군은 농기계 구매 부담을 덜어주고 농촌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을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포함하여 2022년까지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 소형농기계 441대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작년보다 71대가 늘어난 512대(10억2500만 원)를 지원한다. 2022년까지 1,312대(52억4800만 원)를 지원·보급할 계획이다.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은 군이 농

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 농기계 구입금액의 50%(최대 200만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고령농가 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 귀농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한 농가의 관심의 커져감에 따라 군은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을 세우고 읍면 심의회와 군 심의회를 거치는 등 공정한 대상자 선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귀농인, 친환경농업인, 여

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을 우선순위로 지원하고 타 분야의 국·도비 지원 사업을 받거나 최근 3년 이내 농기계 지원 사업 수혜자는 후순위로 선정된다.

지원대상 농기계는 대당 70만 원 이상 농기계 중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기종으로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농기계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기계 지원 확대가 향후 농산물 생산비 절감으로 이어져 농업인 소득 증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함평군,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실시



함평군이 오는 3월 31일까지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한기를 이용해 실시되는 이번 검진은 치매 상담사가 직접 마을 경

로당을 찾아 치매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1차 선별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자가 나타나면 치매안심센터에서 2차 진

단검사를 실시하고 3차 원인감별검사가 필요할 경우 협약병원에서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을 실시한다.

또한 치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인지저하자,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해서도 치매예방 교육, 인식개선 상담 등의 집중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진 결과에 따라 치매 관리 대상으로 등록되면 치매 치료비(월 3만원 이내/소득기준 적용), 조호물품, 치매안심센터가 운영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은희 보건소 가족건강담당은 "치매는 조기에 적절한 치료만 하면 중증상태로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증상 개선이 가능하다며, "이번 집중검진을 통해 치매 없는 행복한 노후를 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김광훈 기자

순천시, 동계 전지훈련장 인기 물이

축구·야구 등 스포츠클럽으로 전지훈련 서막



올해 1월부터 전국 각지의 프로 축구팀, 전지훈련팀, 스포츠클럽 대회 참가팀이 차례로 순천을 방문해 순천시가 동계 전지훈련장으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순천시는 동계 전지훈련장으로 순천시를 홍보하기 위해 전국 학교

운동부, 직장운동경기부 등 스포츠 종목 단체 98개소에 전지훈련 홍보물과 '2019년 순천방문의 해'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순천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부터 프로축구팀 수원

FC, 전국 초등부 11개팀, 고등부와 대학부 15개팀이 순천을 찾아 순천 팔마보조경기장, 국가정원경기장 등 8개 구장에서 훈련과 친선경기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1일부터는 '몽골유도 청소년 대표팀 초청 국제교류전' 참가를 위해 전국 고등·대학·일반·실업 유도팀 30여명과 국가대표팀 24명이 합동훈련에 참가하는 등 유도의 발전과 선수 간 기술교류 및 실력향상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에도 순천시는 동계 전지훈련 기간(12월~3월)내 축구, 야구, 유도, 검도 등 다양한 종목의 선수단 37, 000여명이 순천을 방문하여 약 30여명의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체육회와 함께 "전지훈련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불편함 없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지훈련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전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순천시, 어르신 생활안정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조기 추진

순천시는 지난 14일 어르신들의 생계안정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수행기관별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했다.

올해 사업은 참여자 어르신들을 배려하기 위해 다른해 보다 한달 앞당겨 2월부터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총예산은 87억원으로 3014명이 배정되어 전년 대비 359명이 더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서비스형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등 돌봄시설에 지원되어 참여하는 어르신이 월60~68시간 활동하고, 54~59.4만원의 활동비를 받는 새로운 일자리이다.

이날 심의에서는 대한노인회 6

개사업 572명, 리제노인복지센터 1개사업 160명, 조례노인복지센터 1개사업 150명, 순천YWCA 5개사업 154명, 순천시니어클럽 19개사업 1250명, 공공(파소, 읍면동)에서 12개사업 728명으로 총 44개 사업단에 3014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순천=황경석 기자

영광군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상시 운영

영광군은 농작물 피해 사전예방 및 효율적인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하여 '2019년 기동 구제단 운영 간담회'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로 인명 및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고생하는 구제단의 수고를 치하하고 야생동물 포획 및 구제 시 주의사항, 수렵면허 갱신 안내 등의 사항을 전달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또한, 영광경찰서의 협조를 통해 안전관리 수칙에 대한 교육을 병행 실시하였다.

기동 구제단은 영광군 일원에서 피해신고가 접수된 지역 위주로 구제단원을 집중 투입해 유해 야생동물 포획에 나선다. 특히, 4월부터 11월까지는 주민들이 정성들여 가꾼 농작물의 안전할 수확을 위해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구제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광양시, '전입 장려금' 대폭 확대

광양시가 전입 세대 축하 의미로 지급하는 전입 장려금을 올해 1월 1일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시는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광양시로 전입 신고한 경우 소정의 상품권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20리터)를 지급하는 '전입 장려금' 제도를 시행해왔다.

주요 변경 사항은 ▲전입세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차등 지원, ▲전

입 배우자 지원 신설, ▲전입학생 지원금 증액, ▲전입 장려금 신청기한 연장 등이다.

우선 세대원수에 관계없이 쓰레기봉투 50매를 일괄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세대원수가 3명 이하일 경우 100매, 4명 이상일 경우 150매를 지급한다.

또 배우자가 세대원으로 편입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자가 된다. 자격요건은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실

제 거주하는 사람 중 전입일 전후 90일 이내에 혼인신고 한 세대로 10만 원권 광양사랑 상품권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50매를 지급한다.

아울러 타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광양시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광양시로 전입할 경우에 '전입학생 지원금'도 광양사랑 상품권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전입 장려금 신청기한도 기존 60일에서 1년까지 연장한다.

광양=김승호 기자

광양시, 설맞이 모든 경로당 점검

광양시는 설을 맞이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난 14일을 시작으로 316개소 모든 경로당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를 대비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어르

신들의 불편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은 인구 고령화 및 독거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시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쾌적한 건강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노후했거나 이용이 불편한 시설을 보수 및 교체를 진행한다.

특히 설비의 사소한 고장으로 수선이 필요한 경우 '광양시 OK 생활 민원기동대'가 즉시 출동해 처리한다.

광양=황경석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점검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절한 인사관리방안 안내